



임진왜란은 활자전쟁이었나

고려대장경 연구소 서지조사팀이 남선사 서보전(瑞寶殿)에 소장된 대장경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충청타임즈 '임진왜란은 활자전쟁이었나' 취재팀은 현존 최고(最古) 금속활자본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직지' 등 고려시대와 조선초 금속활자 인쇄술이 임진왜란을 통해 일본에 전래된 흔적을 찾아 집중 조명하기 위해 최근 일본 현지취재를 진행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번 일본 취재 팀장으로 활동한 한인섭 부장의 기고를 통해 한국이 일본의 인쇄문화에 미친 영향을 알아 본다.

기고 _ 한인섭 충청타임즈 부장



일본이 조선활자를 본 떠 만든 동활자로 출간한 군서치요(群書治要).

일본의 금속활자 역사는 조선활자가 넘어가면서 시작

1592년 조선을 침입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 1536 ~1598)는 이듬해인 1593년 당시 일본 왕이었던 후양성 천황(後陽成天皇)에게 조선의 동활자를 바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이어 일본을 통일한 후 1603년 에도바쿠후(江戸幕府)를 창설한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 · 1542~1616)는 1606년 제1차 동활자를 주조해 역시 후양성 천황에 바친다. 일본은 이를 '徳川 銅活字(도쿠가와이의 동활자)' 라 부른다.

일본의 제2차, 3차 동활자 주조는 명나라 사람(唐人)과 조선인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동활자 주조 기술자 임오관(林五官)에 의해 1615년, 1616년 이뤄진다. 제2차, 3차 동활자주조는 일본이 조선활자를 본 떠 자체 제작한 최초의 금속활자가 된다. 일본은 쓰루가판(駿河版)이라고 하는 이 활자로 대장일람집(大藏一覽集 · 2차 주조 활자본)과 군서치요(群書治要 · 3차 주조 활자본)를 출간한다.

쓰루가 활자를 소장하고 있는 도쿄 돛반박물관이 출간한 '준하판 동활자 주조기법의 해석'에 포함된 참고 도표 '준하판 동활자의 역사적 위치'를 보면 이 같은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취재팀이 중요문화재로 지정(1962년)된 쓰루가 활자를 소장하고있는 돛반 박물관을 방문하자 학예사(학예관)들은 이 도표를 건네며 일본의 인쇄사를 설명했다.

이 도표가 눈길을 끌었던 것은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컫는 문록의 역(文祿 · 분로쿠) 이듬해에 표기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이조동활자(李朝銅活字) 후양성천황(後陽成天皇) 헌상(獻上)' 부분 때문이었다. 전쟁 이듬해 조선의 동활자를 천황에게 헌상했다는 내용은 일본 전래 경위와 성격을 한마디로 압축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1593년은 일본군이 평양, 함경도까지 진격했다가 조 · 명 연합군의 반격에 밀려 경상도 일대로 후퇴해 강화 회담과 공격을 거듭했던 시점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조선의 금속활자를 헌상받은 일왕 후양성(고요제이)은 1597년 권학문(勸學文)를 출간한다.

이 책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기술돼 있다.

“책을 찍을 때마다 한 자씩 새겨(부위) 만들어서 한 자씩 판에 올려서 판짜기하여 한 판씩 나가도록 공인에게 명하였다. 이 법은 조선에서 들여왔는데 매우 좋아서 불편함이 거의 없어 이를 본 떠 이 책을 찍는 바이다. 고요제이 2년(1597) 8월 찍다.”

'조선 금속활자'라는 신기술을 접한 일본의 경이로움이 그대로 드러난 대목이다. 일본의 금속활자 역사는 이처럼 조선활자가 넘어가면서 시작됐다.

에도시대를 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동활자를 바친지 13년만에 제1차 동활자 주조에 성공해 천황에게 바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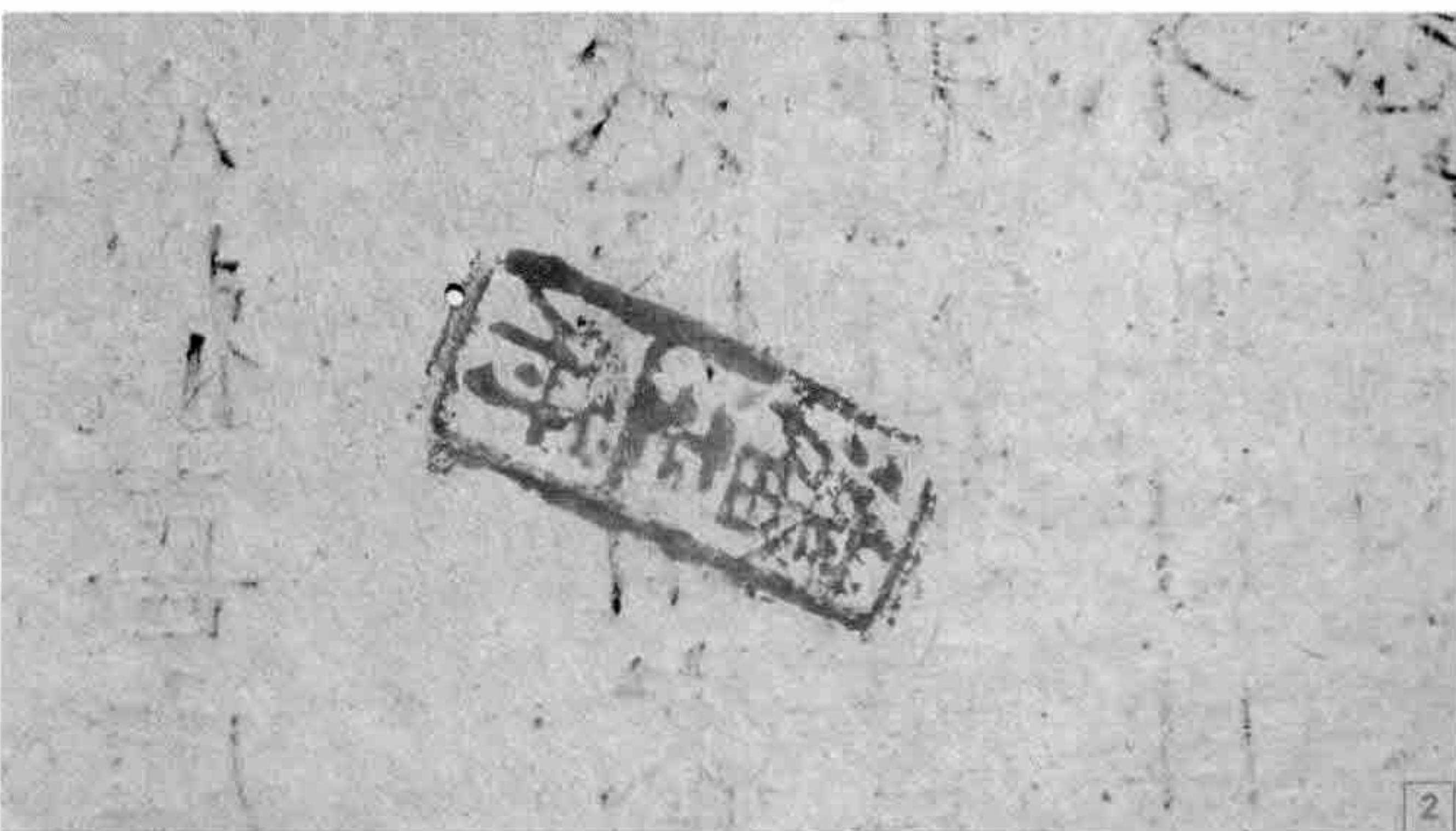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자신의 본거지인 쓰루가(駿河 · 현 시

즈오까) ㅼ성(駿府城)에 머물며 조선에서 가져간 ㄴ쇠 활자와 이를 본 ㅼ며 만든 구리활자를 이용해 대장일람집 11책과 군서치요 47책을 찍었다.

패권싸움에서 승리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임진왜란을 통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에서 약탈한 장서와 활자, 인쇄공들 까지 손에 넣은 후 이 같은 일을 했다고 보여지는 대목이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 약탈 유산을 자신의 학승이 운영했던 후시미(伏見) 학교에 기증했다고 한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伏見版은 이렇게 탄생했고, 쓰루가 문고 장서 탄생으로 이어졌다. 이 장서들은 일본 내각(內閣)문고와 궁내청 서능부(宮內廳書陵部) 장서의 토대가 됐다고 한다.

돗반인쇄박물관 관계자들이 취재진에 건넨 한권의 도록(圖錄)은 일본 인쇄문화사에서 차지하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게 했다.

돗반인쇄박물관 개관특별기획전 도록 제목은 '강호시대(江戸時代)의 인쇄문화-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활자인간(活字人間)이었다' 였다.



1 나경준 청주고인쇄박물관 학예사가 도쿄 돗반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쓰루가 활자를 살펴보고 있다.

2 원판대장경에 날인된 충선왕 심왕부 도장. 고려대장경연구소는 2006년 원판대장경에 심왕부 도장이 찍힌 사실을 처음 확인한데 이어 2008년 하계조사에서 상당량을 추가 확인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活字人間'으로 추앙

임진왜란 후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조선에서 가져간 금속활자와 이를 본떠 만든 쓰루가판 활자로 인쇄문화를 발달시켜 '活字人間'으로 추앙받고 있는 것이다.

임진왜란과 도요토미가(家)와의 오랜 권력투쟁이 끝나 새로운 제도와 통치이념이 필요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조선에서 전래 받은 유학, 주자학 보급에 열중했고, 직지를 한 단계 발전시켜 만든 조선 인쇄술은 긴요한 수단일 수 밖에 없었다.

라경준 청주고인쇄박물관 학예사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도요토미가를 멸망시켜 일본의 지배자가 된 후 새로운 통치 이념을 담은 군서치요와 같은 책을 널리 반포할 필요를 느꼈고, 새로운 정보의 전파 수단으로 금속활자 인쇄기술을 사용했다"며 "하지만 이 때만해도 자체적인 금속활자 기술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조선 금속활자를 토대로 쓰루가 활자를 만들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일 소장 원판대장경 충선왕 관여 제작

한편 일본 소장 중국 원나라판 대장경(元版大藏經)을 고려 충선왕(1275~1308)이 주관해 만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인(심왕부 도장·瀋王府) 날인 불경이 상당량 확인돼 한·중·일 인쇄문화 교류사를 밝힐 새 연구과제로 대두됐다. 이는 14세기 이전 제작된 한·중·일 목판인쇄본 5000여권을 수집해 불교 사전적인 '一切經'을 만든 일본 소장 유물 대부분이 한반도를 거쳐 전래됐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일본 학계는 그동안 국보급으로 간주하는 원판대장경을 중국에서 들여왔다는 입장이었고 충선왕 관여 부분 역시 공개되지 않았었던 사안이어서 대장경 전래 경위를 둘러싼 3개국 학계 논란이 한층 뜨거워 질 전망이다.

충청타임즈 '살아있는直指' 2부 '임진왜란은 활자전쟁이었나' 기획취재팀은 지난달 9일 일본 교토(京都) 남선사(南禪寺·난젠지)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 전래 경위 등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일 공동 초조대장경디지털화 사업'을 추진중인 고려대장경硏(이사장 종림 스님) 서지조사팀(남권희 경북대 교수·정재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으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최초 확인했다. 충선왕 심왕부 직인은 지난해까지 원판대장경 4~5곳에서 확인됐으나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지난 7월 3일부터 15일까지 남선사 서보전(瑞寶殿)에서 실시한 2008년 하계조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

연구소측은 원나라 연경(燕京·현 북경)에 머물렀던 충선왕이 학문연구 목적으로 설립한 만권당(萬券堂) 등 심왕부에서 원판대장경을 출간한 후 귀국(왕위 복위)과 함께 고려로 들여왔을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소측은 또 충선왕 재위 시점인 1390년대 즈음 일본으로 건너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